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도교육청, 추진단 발족·1차 협의회 개최... 내년 1월 유보통합팀 신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유보통합 관리 일원화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 및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박주용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김숙 교육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도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부서와 전북도청의 영유아보육 담당부서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열린 1차 협의회는 △교육부의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 안내 △지방업무 이관을 위한 추진단 업무 안내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 결과보고 △실시부과별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 대상 업무 분석 및 유보통합 시 업무 수행인력 규모를 파악해 확정하게 된다.

또한 국고 대응투자와 지자체 자체



21일 열린 유보통합 관리 일원화 추진단 발족식 및 1차 협의회.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사업을 파악해 이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이관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한 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특히 내년 1월 1일자로 '유보통합팀'을 신설해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유보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은 가는 과정에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발목을 잡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지만 전북발전과 미래를 위한 시대적 사명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원활한 지방 업무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원스톱 관리가 유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외국인 유학생 한마당 행사.

'입학에서 졸업까지'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관리 '만족도 Up'

전북대, 재학생 만족도 조사서 5년 연속 전국 국립대 1위 매년 유학생 OT, 생활·학업 조기 적응, 취업 등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원스톱 관리가 유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최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재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 전국 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매 학기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유학생 응답자의 80% 이상이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23학년도 1학기 만족도조사에서도 전체 응답 유학생 중 80.5%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97.4%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감을 표했다. 불만족을 응답한 유학생은 2.5%인 6명에 그쳤다.

이는 전북대가 국제협력부와 언어교육부 등 체계적인 유학생 지원 전담부서를 통해 입학에서부터 대학생활 및 학업 지원, 유학생 자체 활동 지원과 졸업 후 맞춤형 취업 활동 지원을 통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유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대학 생활 전반을 담은 국·영·중문 3개 국어로 된 가이드북을 발행하는

한편, 유학생들의 원활한 비자 처리를 위한 업무도 대항하고 있다.

특히 'Study Assistant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이 새로운 대학생활과 학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인 학생을 1대 1로 매칭시켜 주고,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위한 'Buddy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및 문화교류와 캠퍼스, 전북지역 투어 등 필수미션을 취 유학생들의 조기 적응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간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매 학기 함께 지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워크숍을 마련하고, 남원과 순창, 진안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문화축제 등에 유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 학생회와 유학생 자체 동아리 운영 지원, 유학생 SNS 글로벌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핵심 계획인 유학생 5천명 유치와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개선을 위해 맞춤형 취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유학생 대상 입사지원서 작성법, 채용 관련 특강, 인사담당자와의 실전 모의면접,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참여 지원, 지자체와 연계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졸업 후 취업까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유학생 페스티벌을 마련, 네팔,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중국, 파키스탄 등 7개 외국인 유학생회에서 자국의 전통복식과 음식 등의 문화를 선보이고, 청사초롱 만들기, 한복체험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유학생 5천 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우수한 유학생들이 우리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이들이 전북지역에 정착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남 전북대 국제처장은 "전북대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체계적"이라며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전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민원행정서비스 '탁월'

올해 모니터링 결과... 총점 90점 이상 기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민원행정서비스가 '탁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은 사전에 교육청이 모니터링 요원을 고객으로 가정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상시적인 민원인 응대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전문업체에 의뢰해 전화진도 조사와 민원처리 서비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전화응대 친절도는 맞이단계·응대단계·마무리단계·체감도 등 4개 영역 10개 항목을 평가해 총점 92.0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이단계에서 수신의 신속성 9.97, 맞이단계에서는 경청 9.91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마무리단계에서 끝인사가 6.75로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나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또 민원처리 서비스는 교육지원청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증명발급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전문성과 신속성 2개 항목을 평가했다.

전문성은 36.55, 신속성은 9.89을 기록해 총합 46.38로, 탁월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화응대 친절도 종합평가 및 민원처리 서비스 종합평가 등 조사항목 모두 '탁월'한 것으로 진단되면서 모니터 요원이 추천한 친절 교직원에 대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성현 총무과장은 "이번에 조사된 서비스 점검 결과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등을 참고해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완주 대덕초 전교생 56명 어린이 손바닥 동시집 출간

완주 대덕초등학교 전교생 56명이 쓴 어린이 손바닥 동시가 20일 도서출판 브로콜리숲을 통해 출간됐다고 전했다. 이번 동시집은 아이들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손바닥 동시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따르면 대덕초에는 교정 곳곳에 '좋은 시가 연중 게시돼 있어 교육공동체 시를 친근하게 접하고 있으며, 시를 함께 낭송하면서 정서를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학교문화가 조성됐다.

또한 유창회 시인과의 만남 기회를 통해 시인의 마음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대덕초는 오는 27일 출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경숙 교장은 "지난 1년간 유창회 시인과 함께 활동하며, 책 출간이라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대견하다"면서 "책 출간이란 소중한 경험이 미래의 꿈을 가꿔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중·고교생 예술적 재능 '맘껏'

전북 학생 예능리더 선발대회, 23일 소리문화전당서 개최

만경고 강민우·남원국악예고 루나·군산동고 밴드부 등 8~10월 도내 5개 권역에서 치른 예선 통과 12팀 무대 위에

도내 중·고등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2023년 전북학생 예능리더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능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인재 발굴을 통해 예능 관련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JTV 전주방송이 주관한다.

그동안 학교 밖에서 이뤄지던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5개 권역에서 보컬, 댄스, 랩, 밴드 등 예능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선대회를 치렀다.

이에 이날 본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12팀이 무대에 오른다. 본선 진출자는 △만경고 강민우(노래) △남성고 이민준(랩) △남원국악예고 루나(댄스) △남원국악예고 아스터(밴드) △김제덕암정보고 언솔리(댄스) △부안여고 김현경(노래) △전주서곡중 더 비버즈(밴드) △이리남중 최정호(트로트) △이리남중 영광동글비탁(밴드) △군산동신중 김지우(노래) △군산동고 밴드부(밴드) △호남중 김민규(락댄스)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무한한 창의력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자신을 위한 자리"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3 풍력 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 워크숍

2023 풍력 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arc.kursan.ac.kr) 추계 워크숍 행사에 최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년 국내 해상 풍력시장에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되는 모노파일(Monopile) 하부구조물 관련 다양한 연구내용들이 소개됨에 따라 참석자 기업 전문가 및 연구진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풍력 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 이대용 센터장(국립군산대학교 교수)은 "에너지혁신연구센터의 R&D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우리 학생연구원들과 국내 해상풍력 수요기업들이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필곤 기자

'글로벌 에너지산업 전망,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

전북대, 이우현 OCI 홀딩스 회장 초청 명사특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0일 오후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OCI 홀딩스 이우현 회장(사진) 초청 명사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분야별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저명인사를 만날 기회를 제공, 학생과 교직원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함으로써 취업지도, 직무와 적성, 취업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및 교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이우현 회장은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구조와 전망, 그리고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이 회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원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되고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 태양광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의 생산 단가가 일반 전력 가격보다 낮아지는 'Grid parity' 개념을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 시장성을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아울러,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니켈 등 필수광물의 수요 확대와, 이를 둘러싼 비즈니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원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되고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선배들이 전북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OCI에 입사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북대에 특별한 감사도 표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호남대, 국내 e스포츠산업 발전 '맞선'

우석대학교(총장 남현)는 지난 20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와 업무협약을 체결, 국내 e스포츠산업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호남대 e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여형일 우석대학교 국제e스포츠연수원장과 정연철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장을 비롯한 양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e스포츠 교육 개발 및 연구 협력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공동 활용 △e스포츠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여형일 국제e스포츠연수원장은 "국내 e스포츠 발전은 물론 차세대 e스포츠 분야를 이끌어 갈 역량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호남대학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철 e스포츠산업학과장은 "양 대학의 강점 분야를 서로 공유해 협력 분야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